

“일본인 개별여행객, 담양의 매력에 빠질 준비 되셨나요”

담양군, 한국관광공사와 손잡고 ‘KOREA 고토치 셔틀’ 운영



오는 7일부터 일본 관광객이 KOREA 고토치 셔틀을 타고 푸르름과 햇살 가득한 담양을 찾게 된다.

담양군은 한국관광공사와 연계해 올 연말까지 일본인 개별관광객을 대상으로 서울에서 담양을 당일 왕복하는 2018 KOREA 고토치 셔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18 KOREA 고토치 셔틀은 전

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공모를 통해 선정된 5개 지역을 서울에서 담양 강릉·평창, 공주, 문경 4개 코스와 부산에서 순천을 합친 총 5개 코스로 연말까지 총 300여 회 운영한다.

담양 노선은 서울에서 출발해 죽녹원과 관광제림을 오전에 관광하고 대동방, 떡갈비로 점심을 한 후 담빛에술창고 또는 한국대나무박물관, 메타세콰이랜드, 메타프로방스를 둘러보는 일정이다. 7월 한 달은 주 1회 시범 운행(7월 7일, 7월 9일, 7월 17일, 7월 25일)하고 8월부터는 주 3회, 총 61회 운행될 예정이다. 전용 홈페이지(<http://koreagotochi.com>)를 통해 운행일자를 확인할 수 있다. 예약 및 결제도 가능하다.

신성호 관광레저과장은 “일본 규슈 오이타현에 위치한 유후인(由布院) 못지않은 볼거리, 즐길거리로 일본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담양의 매력에 꼭 빠지게 만들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관광공사는 KOREA 고토치 셔틀 사업 활성화를 위해 여행업계·지자체와 공동으로 전용버스, 전문가이드, 식사, 관광프로그램을 윈스톱 서비스로 제공해왔다. 지난 2014년 2개 코스로 시작한 셔틀은 3년간 5479명이 이용하며 꾸준한 호응을 얻었다.

담양=박종영 기자

제18회 대한민국 청자공모전 대상작 ‘향기속으로’

경남 김해 김정태氏 작품 커피세트...116개 응모



강진군이 최근 제18회 대한민국 청자공모전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청자공모전에 대한 관심은 전국적으로 뜨거웠다. 평소 서울, 경기 지역에 집중되었던 출품 지역들이 대전·충청지역으로 대거 확대되고 제주, 경상지역에서도 출품 비율이 증가하는 등 명실상부 전국 단위의 공모전으로 거듭났으며, 특히 젊은 도예가들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총 116개 작품이 출품됐다. 대상은 김정태씨의 ‘향기속으로’라는 작품 제목을 가진 커피세트가 상금 100만원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이 걸렸다. 심사위원들 사이에서도 대상을 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작품들 중 최고의 작품을 선정하기 어려워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고 귀띔했다.

대상의 영광을 거머쥔 김정태작가는 경남 김해 출신으로 수상한 슬립캐스팅 기법을 사용했음에도 재료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제작해 완성도와 상품성이 높은 작품을 만들었다는 평이다. 청자공모전 역사상 경상지역 작가의 작품이 대상을 받은 것은 공모전 18년 역사상 최초의 일이다.

전통부문 최우수상에 선정된 정가봉 작가의 청자양각연관문은 대상을 놓고 심사위원들이 오랜 시간 심사숙고 했던 작품이다. 대상을 주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이 많아 심사하는데 상당한 시간

최우수상 디자인부문에 선정된 최중음 작가의 도깨비 수집품은 램프, 향꽃이, 촛대를 도깨비 방망이에서 모티브를 얻어 청자 표면에 뿔을 하나하나 붙여가며 만들었으며 매우 현대적이면서도 전통의 가치를 잘 담아낸 작품으로 높이 평가했다.

심사위원장 김세용 대한민국 명장은 예년에 비해 출품자들의 연령이 젊어 젊음을 볼 수 있었으며 참신한 아이디어 작품들이 대거 출품된 것은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고려청자의 현대적 계승이라는 차원에서 많이 고민하고 노력한 결과로 여겨지며, 수많은 고민과 갈등 속에서 대상을 선정했고 어렵게 선정되지 못한 작품들 또한 매우 좋은 작품이 많아 청자공모전의 높은 수준을 실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적 관심과 성원을 받은 청자공모전이 청자문화 자체를 이끌어 나갈 동력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과 상금 1천만원이 지급되고 최우수상은 전라남도지사상과 상금 500만원(전통, 디자인), 우수상은 강진군수상과 상금 200만원(전통부문, 디자인부문)이 수여되며 강진청자축제 기간인 7월 29일에 축제장 주무대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입상작품은 오는 7월 27일부터 8월 26까지 고려청자디자인박물관 2층 전시실에 전시한다.

강진=김명일 기자

곡성군, 블로그 이용 농업소득 올리기

곡성군은 오는 10일까지 블로그를 이용한 ‘농장홍보 및 농산물 온라인 마케팅 교육’ 참가자를 20명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스마트폰을 활용한 농장 홍보 블로그 운영과 온라인

교육내용은 블로그 개설하고 익숙하기, 블로그 마케팅으로 소득 올리기, 수익형 블로그 운영 노하우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농장과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로 연계할 수 있도록 진행한다.

10일까지 농장홍보·농산물 온라인 마케팅 교육
20명 선착순 모집...19일부터 3주간 총 6회 진행

인 쇼핑을 운영을 위한 정보교육으로써, 7월 19일부터 8월 7일까지 3주에 걸쳐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총 6회, 곡성레저문화센터 3층 정보화교실에서 진행된다.

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홈페이지(<http://www.gokseong.go.kr>)에 안내되어 있으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061-360-7274)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곡성=김광휘 기자

목포어린이도서관 여름방학 체험프로그램 수강생 18일까지 모집

목포어린이도서관이 오는 7월 12일부터 18일까지 ‘2018 여름방학 체험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

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이 다양한 분야의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고 독서의 즐거움을 배울 수 있도록 계획한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7월 31일부터 8월 17일까지 진행된다.

개설 강좌로는 ▲숨은 수학찾기 ▲조물조물 우리역사 ▲맛있는 책방 등 15개 초중강좌와 ▲엄마랑 나랑 책놀이 ▲포디칭의 융합과학 등 3개 유아강좌가 있다.

전체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무료이고, 특정 강좌의 교재 및 재료비는 본인 부담이다.

수강 신청은 목포시통합도서관 홈페이지(www.mkpdlib.or.kr)를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도서관 홈페이지 및 전화로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목포어린이도서관은 여름방학, 휴가 기간 지역민의 유익한 독서 생활을 돕기 위해 신간도서를 다량 구입·비치했다.

‘자연계곡형 천연 피서지’ 영암 기찬랜드 14일 개장



영암군은 자연계곡형 천연 피서지로 유명한 월출산 기(氣)찬랜드와 금정 뱀뱅이골 기찬랜드를 오는 14일부터 개장해 8월28일까지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군은 지난 6월부터 기찬랜드 개

장을 신규 설치했다.

이 외에도 전문성과 성실성을 갖춘 55명의 안전요원을 모집해 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토록 했다.

군은 14일 개장식에 맞춰 박현빈, 강진, 현진우, 지원이, 이혜리, 조승구 등 초청가수의 축하공연과 함께 관광객과 군민이 참여하는 웰빙 장어잡기 체험행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기찬랜드는 이제 남도지역에서 꼭 가봐야 할 여름철 웰빙 피서지이자 관광지로서 자리매김을 확고히 했다”면서 “관광객들이 시원한 물놀이를 안전하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각종 시설 점검과 주변 환경정비 등 손님맞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지역관광마케팅조정본부
湖南新聞
전인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 광주지국 안내			
계림 010-3635-7195	백운 010-2943-8374	광산 010-5604-6533	
중앙 010-3365-6200	학운 010-4166-1810	송하 010-8620-1925	
광천 010-6612-8599	광천 010-6612-8599	임동 010-2656-4543	
금호 010-6636-2775	상무 010-5359-7406	양산 010-2646-3205	
풍암 010-6634-5084	화정 010-8438-3819	오치 010-7532-3313	
봉선 010-9474-0212	진월 010-2615-8374	북구 010-4601-2080	
		동운 018-611-7751	
		용봉 010-4601-2080	
		두암 010-2684-6091	
◆ 시외 안내			
강진 010-4606-0660	담양 010-3629-9016	영암 010-5655-2415	
무안 010-5234-2313	보성 061-853-9125	완도 010-9578-5900	
순천 010-2300-9083	광양 010-5604-6981	장성 010-5287-7711	
영광 010-3611-3081		장흥 010-6234-6226	
		진도 010-3081-5203	
		함평 010-3625-3160	
		화순 010-2077-6464	
		곡성 010-3615-1088	

회춘 이서적벽

“지역언론의 바른길을 열어갑니다”

湖南新聞

전라도의 정문지

▶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및 독자 의견 (062) 224-5800

이메일 : ihonam@naver.com
팩스 : (062)222-5548

▶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 번지 정도프라자 5층)